

## 유재석, 유연석의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 틈만나면

4월 23일(화) 밤 10시 20분  
첫 방송

신규 예능 <틈만 나면,>이 4월 23일(화) 밤 10시 20분에 첫선을 보인다.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이다.

### 유재석X유연석 2MC, 특급 만남 성사

<틈만 나면,>은 개그맨 유재석과 배우 유연석의 특급 만남이 성사되어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은다. 2MC로 합류한 두 사람은 <런닝맨>, <범인은 바로 너> 등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함께 진행을 맡은 것은 처음. 특히, 유연석은 <틈만 나면,>을 통해 버라이어티 예능 MC에 첫 도전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유연석은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뽀뽀'의 <핑계고>에 출연해 유재석과 뜻밖의 티키타카로 큰 웃음을 선사했고, 그의 출연분은 조회수 900만 뷰를 돌파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당시 유재석은 "유연석이 이렇게 웃긴 사람이었나 싶다"며 그의 예능감을 칭찬한 바 있어 MC로 만난 두 사람이 어떤 유쾌한 시너지를 낼지 기대된다.

### <런닝맨> 최보필 PD와 <사이렌: 불의 섬> 채진아 작가 의기투합

신규 예능인 만큼 제작진에 대한 기대도 크다. 유재석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던 <런닝맨> 최보필 PD가 연출을 맡았고,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생존 전투 서바이벌 예능 <사이렌: 불의 섬>으로 화제를 끌었던 채진아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연출을 맡은 최보필 PD는 "자극이나 설정이 들어간 예능이 아닌 있는 그대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틈만 나면,'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예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고의 MC임에도 변함없는 노력으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유재석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탄탄한 연기를 보여 온 유연석이 시청자들의 틈새 시간을 웃음과 에너지로 채워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광수, 첫 회 게스트로 대활약

무엇보다 첫 회 게스트로 이광수가 출격해 눈길을 끈다. 방송 전 공개된 예고 영상에는 두 눈이 활활 불타오르는 이광수가 '구 파트너 현 게스트'의 신분을 잊은 채, 프로그램 홍보에서 카메라 욕심까지 드러내며 첫 회부터 MC 자리를 위협하는 야망을 내비쳐 큰 웃음을 선사했다. 이에 유연석은 이광수를 향해 "왜 고정인 척해?"라고 버럭 하더니 "넌 많이 해 먹었잖아"라며 칼같이 차단해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유재석, 유연석, 이광수는 '휴지 불기', '구두솔 던지기' 등 선물을 확보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이들의 투지를 불사르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홈페이지에서는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중 틈나는 시간을 활용해 특별한 미션에 참여하고 싶은 '시청자의 사연'도 모집하고 있다. 제작진은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그날의 게스트까지 치열하고, 치졸하고, 간절하게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시청자가 될 것"이라며 "어떤 분의 틈새 시간을 찾아가게 될지 '틈만 나면,' 당신에게 달려갈 MC들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록의 **런닝맨** 버라이어티 예능 최초 700회 방송

일요일 저녁을 책임지는 간판 버라이어티 예능 <런닝맨>(연출: 최형인)이 4월 14일(일) 영광의 700회 방송을 맞았다.

<런닝맨>은 2010년 7월 첫 방송된 이래로 15년째 방송 중인 국내 최장수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현재 '2049 시청률 동시간대 1위'는 물론 지난해까지 4년 연속 'WAVVE 올해의 예능'에 선정되는 등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런닝맨>이 700회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15년을 함께한 멤버들의 끈끈한 케미와 제작진의 기발한 미션, 매회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는 강력한 팬덤을 꼽을 수 있다.

700회를 맞아 <런닝맨>은 지난 4월 1일(월) 멤버들과 시청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했다. 이날 멤버들은 만우절을 기념해 신비(지석진), 라떼(유재석), 봄(김종국), 일톤(하하), 딘(송지효), 러브(양세찬) 등 버추얼 캐릭터로 등장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멤버들은 라이브에서 "700회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정말 감사하고, 1,000회까지 달려가겠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외에 700회 특집 방송에서는 유임스본드 700만 원 상금 레이스를 진행해 재미를 주었으며,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놀이공원을 배경으로 새 연령 고지 단체 촬영 모습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매회 기록을 만드는 <런닝맨>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 이서, 한유진, 문성현 새 MC로 합류

<인기가요>(연출: 최장원)에 최연소 3MC 조합이 찾아온다.

4월 28일(일) 생방송부터 <인기가요> 새 MC로, 아이브(IVE)의 이서,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의 한유진, 배우 문성현이 첫 호흡을 맞춘다. 세 사람은 <인기가요> 사상 최연소 평균 연령으로 이루어진 '막내즈 MC'로 또래들만의 귀엽고 발랄한 '찐찐 바이브'를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국내와 해외 팬심을 모두 사로잡으며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4세대 대표 걸그룹 아이브(IVE)의 이서는 팀의 막내이면서도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반전 무대 매력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이서는 3년 전 <인기가요> MC를 맡았던 멤버 안유진에 이어 "매끄럽게 진행을 잘 하는 MC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을 휩쓸며 압도적인 화력으로 5세대 글로벌 대표 보이그룹으로 자리매김한 제로베이스원의 한유진은 팀의 비주얼 막내로 활약 중이다. 지난달에도 <인기가요> 스페셜 MC를 맡아 매끄러운 진행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한유진은 "스페셜 MC 경험을 살려 나만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겠다"고 당찬 각오를 전했다.

배우 문성현은 강동원, 김수현, 남궁민, 유연석 등 내로라하는 대세 배우들의 아역을 도맡으며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라이징 스타다. "음악방송을 늘 챙겨보며 MC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힌 문성현은 글로벌 K-POP을 향한 열정으로 패기 넘치는 진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열정과 패기의 '막내 파워'를 예고한 3MC 아이브 이서, 제로베이스원 한유진, 배우 문성현이 함께하는 <인기가요>는 오는 28일(일) 오후 3시 20분 생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이서(IVE)



한유진(ZEROBASEONE)



문성현(배우)

부서탐방



### "노동과 협력을 바탕으로 최적화 솔루션을 찾는다"

시사교양본부 교양운영팀

교양운영팀에서 근무한 지 4개월 차이며, 팀 내 가장 최근에 합류한 멤버(윤혜리)로서 나름 객관적인 시선으로 교양운영팀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양운영팀으로 처음 발령이 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웬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였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말은 그다지 좋은 뜻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너무 격식을 차릴 것만 같은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들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양운영팀 합류 후에 이렇게 유쾌하고 센스 있는 팀은 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늘 감사한 마음이다.



먼저, 교양운영팀은 시사교양본부 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작비를 관리해야 하는, 상충된 미션을 가진 팀이다. 제작진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돈을 아끼는 방법을 동시에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작과 관련된 계약 체결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 성과 분석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제작 현장에 녹아들도록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프로그램의 예산 편성을 최적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소 무겁고 진지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교양운영팀은 이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즐겁게 풀어나가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면 팀원들과 앉은 자리에서도 다 함께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같이 고민하며 솔루션을 찾곤 한다.

교양운영팀은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팀이다. 이렇듯 유연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사교양본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교양운영팀을 응원해 주면 감사하겠다.



## MMTG의 K-POP 토크쇼

### 명곡 챔피언십 4월 24일(수) 첫 방송

MMTG(문명특급)의 새로운 기획 <명곡 챔피언십>이 4월 24일(수) 밤 10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명곡 챔피언십>은 MMTG의 K-POP 전문 MC 재재와 '소녀시대' 수영이 진행하는 K-POP 토크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K-POP의 모든 것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명곡 챔피언십> 탄생 배경에는 K-POP 팬들의 간절한 염원이 큰 역할을 했다. K-POP 전문가로 유명한 재재와 다양한 K-POP 콘텐츠를 만들어낸 MMTG 제작진에게 K-POP에 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한 것. 실제로 재재는 과거 보아, 비, 소녀시대를 좋아한 K-POP의 오랜 팬이자 일명 '성공한 덕후'로, 수많은 스타들과 깊이 있는 토크로 화제를 모았다. 또한, '숨어 듣는 명곡(숨듣명)', '다시 컴백해도 눈감아줄 명곡(컴눈명)' 등에서도 수많은 K-POP 팬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명곡 챔피언십>에서는 '명곡 아지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사랑한 K-POP 명곡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고, 아티스트들이 직접 뽑은 K-POP 명곡을 재조명한다. 여기에 글로벌 K-POP 팬들과 함께 소통하는 코너를 마련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POP 문화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MMTG 제작진은 방송 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을 K-POP 팬으로 살아온 재재의 'Draw My Life' 영상을 선공개해 진정성 있는 K-POP 프로그램 탄생을 예고했다.

지상파 유일무이 K-POP 전문 토크쇼 <명곡 챔피언십> 첫회는 4월 24일(수)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 “택배 업무의 신조는 신속, 정확, 친절!”

총무팀 장영근

목동 SBS 방송센터 1층 출입 게이트를 지나 좌측 안쪽에는 우편수발실이 있다. 여기에는 각 팀과 전 사원의 우편물, 택배가 모여있고, 이 자리를 오랜 시간 지켜온 장영근 사우가 있다.

### 언제부터 우편수발실 업무를 담당했나?

2018년 SBS에 입사해서 약 6년간 택배 업무를 맡고 있다. 이전에는 건축자재 업체에서 영업과 구매 업무를 했는데, 급격히 한쪽 시력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SBS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택배 업무의 경우, 이름과 주소만 확인하고 놓는 장소와 배치 등을 익혀 두면 시력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기억력이 좋은 편이고, 영업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걸 좋아한다.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사우들을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 택배 시스템 혹은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 점은?

라디오 사서함 시절에는 팬들과 청취자의 우편 물량이 많았다. 지금은 게시판, 메일로 사연을 접수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우편은 줄고, 택배가 많아졌다.

특히, 작년까지는 예능 프로그램의 소품 택배가 많았는데, 예능이 상암으로 이전한 후부터 주로 교양과 유튜브 콘텐츠 운영팀의 소품이 주를 이룬다. 또 주문하는 택배 회사도 각각 달랐던 반면, '쿠팡'이 등장한 이후로는 한 군데로 모아서 오

는 편이다. 여기에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의 급부상으로 해외에서 오는 택배도 많아졌다. 방송사라는 특성상 야간 근무와 출장이 잦고, 1인 가구도 늘어서 개인 택배 비중도 커졌다.

### 'SBS 택배 TOP 3'와 기억에 남는 택배를 꼽는다면?

택배 1순위는 '생수'다. 그다음 순위는 '간식', 그리고 '소품'이다. 특히, 각 팀마다 한꺼번에 주문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월 초 택배 분량이 몰린다. 그 외에 방송 장비들과 PPL 소품, 주기적으로 오는 도서류를 꼽을 수 있다.

<정글의 법칙> 방송 당시, 제작팀이 출장 갈 때마다 약 한 달 촬영분의 소품(텐트, 매트리스, 침낭 등)을 주문하기 때문에 우편수발실에 발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부피가 큰 용품이 쌓이곤 했다. <TV 동물농장>에서는 동물 케이지가 오기도 하고, <백종원의 골목 식당>은 막걸리 시음용으로 전국의 막걸리가 배달된 적도 있다. <동상이몽>에서는 '문짝'이 택배로 와서 수레에 실어 팀에 배달해 주었던 기억이 있다.

### 본인만의 노하우, 그리고 사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정기 인사 발령이 나면 팀 이름이나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 새 조직도에서 팀 이름을 외우고 담당자도 전화번호로 변경된 팀을 확인하면서 익힌다. 보통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작업으로 기억하는 편이다. 될 수 있으면 택배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름 하나만으로도 어느 팀에서 어느 팀으로 이동했는지 경력을 찾아내고 연결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택배가 오면 수령자에게 바로 연락을 하는데 우편수발실 공



간이 제한적이고 수많은 택배가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의 순환 차원에서 당일 수령을 부탁하고 싶다. 언제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퇴근할 때 물품 보관함이 깨끗이 비워져 있으면 '오늘도 열심히 일했구나'는 생각이 들어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앞으로도 택배 물건을 소중히 보관하고 사우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박세리의 디톡스 힐링 토크쇼



4월 28일(일) 박세리의 힐링 푸드쇼 <세리네 밥집>이 공개된다.

콘텐츠협력제작팀에서 선보이는 <세리네 밥집>은 '국민 영웅' 박세리와 'K-POP 스타' 최강창민, 윤두준이 '세리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핫한 셀럽 손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직접 요리한 집밥을 대접하는 푸드 토크 버라이어티이다.

무엇보다 골프만큼이나 수준급 요리 실력과

진행 능력까지 갖춘 박세리와 K-POP 대표 주자이자 요리 고수 최강창민, 먹방 최강자 윤두준까지 '음식'과 연관이 깊은 3MC의 만남이 신선하다.

<세리네 밥집>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세리 표 레시피'부터 갖가지 요리 팁이 모두 방출될 예정이다.

또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세 사람의 찰떡 케미도 <세리네 밥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관련 포인트이다. '리치 언니' 박세리가 '리치 푸드'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시간이 될 <세리네 밥집>은 다양한 음식과 깊이 있는 토크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모두 충족시킬 것이다.

현대 사회에 지친 셀럽들을 위한 심신 디톡스 푸드멘터리 <세리네 밥집>은 4월 28일(일) 오전 10시 55분에 첫 방송된다.

## '미미미누'가 진행하는 유튜브 인기인 가요 인기 상승세



뷰를 기록하며 초반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노래 인기인가요>는 구독자 128만 명을 보유한 입시&코미디 크리에이터 '미미미누'가 K-POP 아이돌로부터 노래 코칭도 받고, 함께 가사 분석도 해보는 신개념 K-POP 토크 쇼이다. 지난 3월 초 론칭한 후 현재 총 5개의 정규 에피소드가 공개되었는데,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 2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1020 시청층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더보이즈'가 출연한 네 번째 에피소드는 공개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80만 뷰를 넘어서었다. 매주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에 랭크되면서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K-POP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SNS를 중심으로 숏폼 콘텐츠도 폭발적으로 확산 중이다.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프로미스나인' 미방송분은 단숨에 7만여 개의 '좋아요'와 조회수 100만 뷰를 넘어섰고, 매주 공개되는 숏폼 콘텐츠는 틱톡과 유튜브에서 각각 누적 2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마케팅제작사업팀은 <이 노래 인기인가요>의 성공적인 론칭을 기점으로 디지털 오리지널 킬러 콘텐츠 제작에 재시동을 걸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 후속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여 마케팅솔루션 패키지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 연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마케팅제작사업팀이 제작하는 신규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 <이 노래 인기인가요>(연출: 김한진)가 단기 누적 2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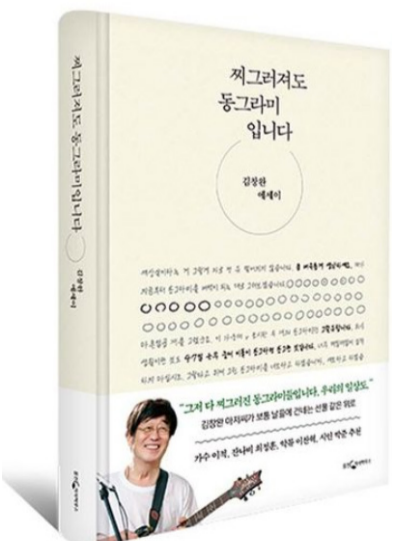
##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김창완 에세이 출간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를 23년간 진행한 김창완이 청취자들에게 답한 편지와 매일 아침 직접 쓴 오프닝을 엮어서 책을 출간했다.

특히, 손으로 그린 47개의 동그라미 중 두어 개만 그럴듯한 것처럼, 회사 생활도 47일 중 이들이 동그라미인 동그라미 것이라고 위로한 편지는 SNS와 블로그에서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다. 또 돌아가신 할머니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청취자에게 산울림의 막내인 김창익을 잃은 상실감을 고백하며 건넨 김창완의 편지도 눈물겹고 따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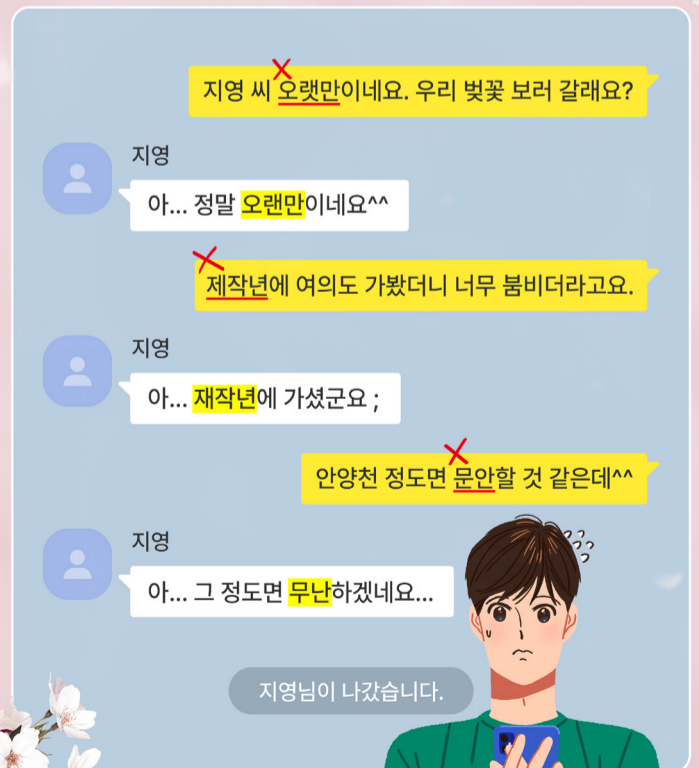
이처럼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에는 따뜻한 격려뿐 아니라 어그러진 일상에 실망할 것도 없고,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졸작들도 그 자체로 예쁘다는 김창완만의 인생관이 담겨 있다. 또한 어제의 슬픔과 비애를 '뭐, 별거냐?'며 대수롭지 않게 털어버리고 오늘의 자전거 바퀴를 힘차게 굴리는 그만의 경쾌한 삶의 태도도 엿보인다.

김창완은 "늘 음악은 사라져서 아깝다고, 흔적 없는 삶이 향기롭다고 생각해왔다. 공교롭게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만두면서 이 책이 출간되어 흔적을 남기게 됐다. 그동안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달라. 혹시라도 위로가 된다면 기쁠 것 같다"며 책 출간 소감을 전했다.



## 우리말 쪽

오늘도 그 혼자인 이유



SBS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우리말 인스타그램 @sbsannkorean